

		보도자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
		배포일자	2021년 8월 3일(화) 총 2매		
담당부서	택시물류과	담당자	• 택시정책팀장 박성오 ☎440-3801 • 주무관 이동미 ☎440-3802		
사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도시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장애인콜택시 특장차 169대로 확대...24대 증차

- 휠체어 특장차 42대 구입(신규 확충 24대, 노후차량 교체 18대) -
- 관제시스템 개선으로 안전성과 편리성 제고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42대를 구입해 8월 2일부터 증차 운행한다고 밝혔다.

이번 차량구입으로 장애인콜택시 특장차는 145대에서 24대 증차된 169대로 확대 운영되며, 노후차량 18대도 교체해 교통약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.

인천시는 특장차 외에 바우처택시 300대도 운영하고 있다. 바우처택시는 교통약자가 일반택시를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, 교통약자는 장애인콜택시 요금만 지불하고 시는 일반요금과 장애인콜택시 요금의 차액을 바우처택시 기사(개인택시기사)에게 보전해줌으로써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.

또한 현재 추진 중인 콜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이 8월 말 완료되면 이용

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다.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능형 자동배차로 대기시간 최소화, 차량의 위치와 도착 예상시간 안내 등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, 통합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모바일 앱 이용 활성화로 예약 편리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.

김정범 시 택시물류과장은 “매년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을 확충하고 노후차량도 교체할 것이며, 새로운 미래지향적 시스템 구축으로 대시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” 고 말했다.

<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>

